安東權氏宗報 발행·편집인 권해옥 편집위원장 권오신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02585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E-mail : andongkwonmun@daum.net / ankwon2695@naver.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회
헌성금·회비·광고료·종보구독료 등 대종회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33237-04-006941 농 협 317-0009-7471-41 예금주:안동권씨대종회

安東權氏宗報

선비정신을 계승하는 참된 인재 양성
대 영 고 등 학 교
대 영 중 학 교
學校法人 大榮敎育財團 理事長 權武倬 대표 (054) 630-7803

[월간] 2019年 1月 1日(화요일) ☎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0年 第 523 號

밝아오는 기해년 새해

100만 족친이 더욱 화목하고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족친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족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대종회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안동권문의 영원한 본향인 **시조 태사공의 춘추향제**를 필두로 하여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와 **이치대첩제를 성황리에 봉행**하였습니다. **5월 정기총회와 서울청장년회**에서 주최한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지역종친회장단협의회 회의, 파종회장단협의회 회의,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등은 안동권문의 단합된 모습과 저력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권응렬 고문의 기증으로 대종회 장학회를 설립하여 자라나는 10명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으로 개인별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동안 종친회가 결성되지 않았던 **제주특별자치도에 권오한 회장**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족친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제주지역종친회가 창립**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600여 년 전에 명나라에서 황후 역할을 하다 비명에 돌아가신 권현인비릉을 권영성 상임부회장이 단장으로 방문하여 중국 현지에서 조촐하지만 역사적인 추모식을 봉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보 보급체계를 개선하여 종보 보급 확대와 종보 대금도 모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100만 서명운동은 3월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지역종친회, 전국청장년협의회와 여러 족친들이 뜨거운 애족심을 발휘**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족친과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금년 초에 청와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모로 애써 주신 모든 족친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회에서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100만 족친의 숭조정신과 애족하는 마음을 받들어 안동권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장공 선조님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 정당한 역사 재평가를 위해 청와대에 건의 예정인 '충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2019년 3월 권율도원수 행주대첩기념제를 전후로 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요청하여 국민적인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족친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참여로 안동권문의 저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500여 년 동안 실전되었던 안동권문의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아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평창공 권응 선생의 공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평창공의 시조 태사공 묘소 수호의지는 후손들이 길이 본받아야 할 숭조정신의 모범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생의 공적을 제대로 기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는 안동권문의 명예를 지킨 학림공 권방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사업입니다. 시조 태사공 묘역을 지켜낸 학림공 선조의 업적은 후손들이 마땅히 선양해야 할 일이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넷째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칭)정신역사관 건립 사업은 안동시 예산 확보 문제와 추진위원회의 합의 도출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100만 족친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숭조와 애족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화목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묵은 불신은 걷어내고 서로 포용하며 신뢰합시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족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대소 종중(宗中)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선조들의 고귀한 자취와 삶의 가치를 본받는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안동권문의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은 평창공 권응 탐방

평창공의 공적 기리는 사업은 숭조와 자긍심의 실천

평창공 권응(추밀공파 17세)은 500여 년 동안 실전된 시조 묘소를 찾은 선조이다.

비록 관직은 평창군사(平昌郡事)에 머물렀으나 누구보다 숭조정신이 뜨거웠던 인물이다. 그 덕분에 후손들은 매년 봄 가을로 100만 족친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며 시조 묘소에 춘추향제를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후손들은 안동권문의 일가(一家)로서 크나큰 자긍심을 느끼며 뿌듯해 한다. 한 뿌리에서만 갈래의 가지가 무수히 갈라져 나오듯 수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 그 근원이 바로 시조 묘소이다.

대종회에서는 권기 1090년이 되는 기해년 2019년을 맞이하여 평창공 권응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관련기사 8면)

1月 회비 납부 및 찬조금 내역

<부회장 회비>

권길상(상임위원)	1,000,000원
권영창(전 영주시장)	1,000,000원
권혁운(아이에스동서회장)	1,000,000원
권혁홍(대양그룹회장)	1,000,000원
권오덕(변호사)	1,000,000원
권광택(전 도의원)	1,000,000원
권영훈(전 감사)	1,000,000원
권혁준(전 부총재)	1,000,000원
權勝一(日本關西宗親會副會長)	1,000,000円

<종무위원 회비>

권중원(부산)	200,000원	권영동(대구)	200,000원
권오탁(안동)	200,000원	권혁도(김천)	200,000원
권갑현(영주)	200,000원	권태연(제천)	200,000원
권대인(청송)	200,000원	권오현(음성)	200,000원
권태웅(서울)	200,000원		

<종무위원 회비>

권성용(부산)	300,000원	권혁구(서울)	300,000원
권혁정(대구)	300,000원	권태석(창원)	300,000원
권경호(대구)	300,000원	권태봉(영천)	300,000원
권이원(대전)	300,000원	권오준(영천)	300,000원

<찬조금>

권태인 고문(카렌다 제작비)	1,000,000원

총 계 : 14,2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권해옥 회장,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광택 부회장 등 日本關西宗親會 訪問 權英喆 會長에게 感謝牌 전달

感 謝 牌

日本國 大阪市 關西宗親會長 權英喆

貴下께서는 平素 透徹한 崇祖理念과 愛族心으로 安東權氏 始祖 및 郎中公 墓祀의 位土를 마련하신 功勞와 大宗會 發展에 物心兩面으로 寄與한 功이 크므로 100만 安東權門의 마음을 담아 이 牌를 드립니다.

2018.12.

安東權氏 大宗會 會長 權海玉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관서종친회 회원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동권씨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국 시조 태사공과 아시조 낭중공의 춘추향을 위한 제수비로 위토를 매입하여 대종회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종회에서 위토의 일부를 위토 기증자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매각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관서종친회에서는 그동안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권광택 부회장이 일본을 왕래하면서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권승일(權勝一) 부회장과 긴밀히 연락하여 그간의 오해와 해묵은 감정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권해옥 회장 일행의 방문을 주선하게 되었다.

권해옥 회장 일행은 12월 21일에서 23일까지 관서종친회를 방문하면서 권영철 회장과 상임위원 5~6명에게 만찬을 베풀고 대종회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과 헌신에 크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권영철(權英喆)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권해옥 회장 등의 이번 방문은 한국과 일본 족친간의 그간의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한번 화합하고 단결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앞으로 관서종친회에서 기증한 위토에 대해서는 (가칭)정신역사관과 같이 자손만대까지 길이 보존할 수 있는 목적과 명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서로 상의하여 매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어떠한 목적이나 명분도 없이 위토를 매각하는 행위는 권해옥 회장 재임 시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권광택 부회장이 만찬비용과 숙박비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 한국과 일본 족친 간에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謹 賀 新 年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100만 족친의 만사형통(萬事亨通)을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100만 족친여러분의 가내 화평을 바라오며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옵니다.
우리 지역종친회장협의회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가문의 번성과 종사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 의 회 장 권영호(부산회장)
고 문 권길상(부산), 권동술(합천)
부 회 장 권충화(광주회장), 권영복(산청회장), 권태복(금천회장), 권오한(제주회장), 권오신(전주회장), 권순호(대구회장), 권만집(상주회장), 권재덕(진주회장), 권용기(대전회장), 권영화(구미회장), 권경호(영양회장)
감 사 권주연(안동), 권석호(합천)
간 사 장 권태형(마창회장)

권경관 금산회장	권봉정 포항회장	권영목 중랑회장	권오섭 진천회장	권용기 대전회장	권태복 금천회장
권경호 영양회장	권상용 서남권회장	권영복 산청회장	권오식 분당회장	권재원 정읍회장	권태형 마창회장
권경환 영천회장	권성덕 영덕회장	권영석 예천회장	권오열 강릉회장	권정걸 안양회장	권태호 충북도회장
권계수 창녕회장	권성업 증평회장	권영순 용인회장	권오영 봉화회장	권재덕 진주회장	권혁진 부천회장
권공식 담양회장	권숙동 안동회장	권영창 영주회장	권오영 예산회장	권주석 서천회장	권희량 연천회장
권기택 청주회장	권순종 통영회장	권영하 영등포회장	권오신 전주완주회장	권준표 순천회장	권희성 온양아산회장
권만집 상주회장	권순호 대구회장	권영현 여주회장	권오한 제주회장	권중관 하동회장	
권병기 의령회장	권승구 마포회장	권영호 부산회장	권오흥 경산회장	권창구 원주회장	
권병택 음성회장	권영국 옥천회장	권영호 의성회장	권오협 제천회장	권천문 중구회장	
권병후 수원회장	권영근 밀양회장	권영화 구미회장	권오협 충주회장	권충화 광주회장	
권봉섭 단양회장	권영모 청송회장	권오길 경주회장	권옥술 울산회장	권태갑 문경회장	

안동權씨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권영호